

# 전적문화재 가득한 영남사림의 고향

## 책의 해에 찾아가본 책의 名所 ③ - 玉山書院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황과 더불어 동방5현의 한 사람으로서 추앙되는 회재 이언적(1491~1553)은 흔히 “主理學의 선구자” “영남학파의 창시자” “탁월한 經世家”로 불린다.

### 회재 이언적, 주리학의 선구자

그가 주리학의 선구자라 함은 조선조 유학 사상 최초로 이론체계를 세웠으며, 이퇴계에게 큰 영향을 끼쳐 한국유학의 최전성기를 꽃피운 밑거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언적은 27세 때 당대의 논객 조한보와 ‘無極太極說’ 논쟁을 벌였는데, 4차례 걸쳐 조한보의 철학적 견해를 비판한 長文의 서한집이 후일 이퇴계에 의해 “體와 용이 겸비된 학문”으로 고품대 비토소 理學과 心學의 조종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퇴계는 「회재선생 行狀」을 통해 “아! 우리 조선은 옛날에 仁賢의 교화를 입기는 했으나 그 學은 傳함이 없”었는데, “(이언적의 글들을) 삼가 받아서 읽고 반복 참구하여 옛날 성현의 말로써 그 當否를 질정해” 본 결과 과연 이언적이야말로 學을 傳한 이라고 존경의 마음을 적어놓았다. 북한의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지은 「조선철학사연구」에서는 “이언적과 조한보와의 논쟁의 의의는 그것이 그 후 지속된 객관적 관념론 체계와 주관적 관념론 체계와의 논쟁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는 데 있다”고 정리한다. 최완기 교수(이화여대)는 「한국성리학의 맥」(느티나무)에서 “이언적은 사람과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고 평가한다. 그 평가가 어땠든 조선유학사상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그의 철학과 학문의 선조성만큼은 두루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언적은 영남학파의 ‘창시자’ 혹은 ‘기반’이라고 우위된다. ‘영남학파’는 다소 지역갈등의 뉘앙스를 풍기고 훗날 사색당파와도 연관돼 조심스럽게 언급되지만 그 功過가 어떻든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철학적 이론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학문용어에도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유학 특히 성리학은 첫 수용 단계부터, 나쁘게 말하자면, ‘분열성’을 숙명적으로 내포했다. 고려말에 유입된 성리학은 조선조의 건국이념으로 채택되었으나 신왕조에 찬성·반대하는 두 부류의 학풍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정도전 등 신왕조건설에 적극 참여한 유학자들의 ‘官學’과 정몽주를 비롯한 ‘불사이군 정의파’들의 ‘私學’이 그것이다. 그 私學은 훈구파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김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1573년(선조6)에 창건됐다.



溪亭 獨樂당에 부설된 정자.

종직의 ‘사람파’로 이어지고, 사람파는 다시 성리학의 학문적 쌍벽으로서 찬연한 탐을 쌓은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대별되는바 이언적은 영남학파의 주도자인 퇴계 이황의 철학과 학문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서 영남학파의 창시자라고 회자되는 것이다.

탁월한 경세가로서의 이언적의 면모는 “일시적 미봉책으로서가 아니라 ‘民’을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서 그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였다”는 데서 찾아진다. 공신과 척신을 주축으로 하는 훈구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고 부정부패를 만연시키는 것에 반대하여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부역과 조세를 가벼이 할 것을 주장하여 농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民本이란 어구를 입으로만 가꿈씩 외우던 종래의 유학자들, 특히 4대사화를 불러일으킨 훈구파와의 대립에서 사람파가 승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다졌다. 그는 시무책에서 국방에 대해서도 역설, 이윤곡의 10만양병설에 앞서 ‘유비무환’을 강조했다.

이언적은 그러나 대부분의 선구적 삶이 그러하듯 아픔과 불우의 생애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선구적 영혼들이 또한 그러하듯 아픔과 불우의 시기에 가장 탁월한 업적을 창출해냈다. 그의 아픔은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의 불우는 14세 때 “사람이 읽어서 정통한다면 목수가 굵은 나무를 먹줄로 곧게 만들듯이 우리도 자기 몸을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시를 써냄으로서 출발한다. 대쪽같이 살겠다는 어린 의지는 장차 피비린내나는 4대사화의 시대와不和의 관계에 놓일 것임은 자명하지 않았는가. 그같은 아픔과 불우가 앞으로 다사다난하게

될 그의 생애의 예고편이었다면, 을사사화의 말미에 누명을 쓰고 평안도 강계땅 유배지에서 혹한의 겨울에 죽은 일은 불우한 운명의 종결편이라 할 만하다. 그의 서자 잠계공 이진인마저 회재의 시신을 수습하여 수천리 병판길을 운구하여 얻은 병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더욱 그렇다.

### 옥산서원, 서원 중 으뜸의 품치 지녀

신라 古都 경주에서 수만년을 유유히 흐르는 형산강을 옆구리에 끼고 ‘나는 나다(吾也)’ 마을과 ‘호랑이 울음소리(虎鳴)’ 마을을 지나면 ‘하회 제일, 양동 제이’라는 양동 민속마을과 이언적을 모신 玉山書院이 있는 경주군 안강읍이 나온다. 경주에서 경주군 안강읍으로 가는 길은 그러므로 신라에서 조선으로,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건너뛰는 타임머신의 통로인 셈이다. 안강읍에서 서원이 자리한 玉山里 가는 국도의 연변에는 ‘풍어사’ ‘태공사’ 등 낚시용품 전문점들이 줄지어 서 있다. 부근에 물 좋은 저수지들이 있다는 증표인 것이다. 좋은 물이 있는 곳에 좋은 산이 없을 리 없어서 옥산서원은 “주변의 경관과 풍치로는 전국의 서원 가운데 으뜸”(최동욱 저, 「한국의 비경-동해안권」)으로 꼽힌다.

서원에 들어서려면 울창한 수림 속 암반과 암석이 어울린 아름다운 계곡을 가로지른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한다. 입구는 외길, 외나무다리밖에 없는 것이다. 서원 관리인 이현묵 씨는 “서원을 들어설 때 모든 잡념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외나무다리를 놓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껏 실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믐밤 같은 날 주변이 캄캄해지면

외나무다리만 환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원의 구조는, 「한국의 서원」(대원사)의 한 단락을 그대로 읊기자면, “전형적인 서원 건축으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데 중심축을 따라서 문루, 강당, 사당이 질서있게 배치되고 있다. 외삼문인 연락문을 들어서면 무변루라는 누각이 나타나고, 이어서 계단을 오르면 마당이 전개된다. 정면에는 구인당이란 당호의 강당이 자리잡고 있고 좌우에는 민구재, 암수재의 동, 서 재실이 있어 원생들이 기숙하고 있었다. 강당을 옆으로 돌아서서 뒤로 가면 체인묘라는 사당이 나타난다. 주변에 장판각, 전사청, 신도비 등이 나름대로 자리잡고 있다.”

이 배움터와 배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서원건축보다는 서원에 수장된 많은 서책이다. 옥산서원은 현존하는 서원 문고 가운데 가장 많은 책들을 보유한 곳의 하나인 것이다. 서원 경내에 503종 2847책이 수장돼 있다. 그리고 회재가 세상을 사절하고 오직 서책에만 탐닉하고 학문을 익혔던 獨樂堂에는 363종 1264책이 있다. 이들 보관된 책 가운데에서도 1513년에 간행된 「정덕계유사마방목」은 현재까지 발견된 활자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보물 542호이며, 그밖에 「삼국사기」 「해동명적」 「이언적수필본」 등도 보물로 지정된 전적문화재이다.

특히 1972년 현대식 장서각으로 신축된 ‘청분각’에 소장된 「삼국사기」는 현존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책의 명소로서의 옥산서원의 무게를 더해준다. 고려시대에 몇번이나 版을 거듭했겠지만 고려판은 전하지 않으므로 “확실한 간행연대는 미상이고 문헌조사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ioni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

### 동방5현의 한 사람인 이언적은

### 대부분의 선구적 삶이 그러하듯

### 아픔과 불우의 생애를 보냈다.

### 그러나 선구적 영혼들이 그렇듯

### 가장 불우했던 시기에 가장 탁월한

### 학문적·철학적 업적을 창출했다.

### 이언적을 모신 옥산서원의 풍치는

### 전국에서 으뜸으로 꼽히며, 특히

### 현전 最高本 「삼국사기」와

### 「이언적수필고본」을 소장하고 있다.

에 의하면 1573년경에 印出된 것인듯 하다"는 옥산서원 소장본 「삼국사기」는 현전 最高本이라는 점에서 철통같은 보호를 받고 있다. 이 현목씨는 "청분각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3인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해야 하고, 「삼국사기」를 직접 보려면 금고를 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사람만이 금고번호를 알고 있는데 나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전한다. 회재의 17대 중손 이해철씨(45)는 일제시대 때 그 「삼국사기」를 '압수'하려던 총독부에 맞서 끝내 지켜낸 그의 할아버지를 자랑한다.

"그때 「삼국사기」를 빼앗겼더라면 내용이 변조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두들겨 때 맞기도 하는 등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 독락당, 낙향 설움 속 학문 꽃피운 곳

서원에서 서북쪽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는 회재의 별장이자 서재였던 독락당이 있다. 독락당 주위에는 회재가 산책하며 마음을 씻고(세심대), 물고기를 보고(관어대), 갓끈도 씻고(탁영대), 시를 읊으며 돌아와(영귀대) 마음을 밝히던(증심대) 반석과 그것들을 둘러싼 화개산·자옥산·무학산·도덕산 등 四山玉臺의 경승이 펼쳐져 있다. 독락당 주변 경계의 아름다움은 「태평가」 「선상탄」 「영남가」 등의 시가로 유명한 노계 박인로의 「독락당가」에 잘 표현되어 있다.

"...담쟁이를 헤쳐 들어 독락당을 열어내니 /...길게 자란 대나무는 시내 따라 둘러 있고 / 수많은 서책들은 사면 벽에 쌓였으니 /...참다운 즐거움이야 이 독락에 더할손가 /...고요히

살펴보니 내 뜻도 맑아진다..."

보물 제413호인 독락당은 정면 4칸에 측면이 2칸인 8각지붕을 한 전형적인 조선중기의 건물로 사묘·어서각·계정·양진압 등의 부속 건물을 포함한다. 독락당 소재의 전적 중 「海東名蹟」과 「이언적 隨筆 稿本」은 그 자료적·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책들이다. 「해동명적」은 종종 때의 문신인 신공제가 우리나라 역대 명필의 글씨를 모아서 石刻한 것을 탁본한 것으로 탁본에 조금도 훼손된 데가 없이 완전한 것으로 보아 初拓으로 단정되는 '자료집'이다. 최치원 등 신라 명필 3인, 일연 등 고려인 3인, 정도전 등 조선사람 12인의 명작이 수록돼 있다. 「이언적 수필 고본」은 총 13책으로, 유배지시절을 전화위복 삼아 조선 조 유학사를 찬란히 빛낸 「대학장구보유」 「속대학혹문」 「봉선잡의」 「중용구경연의」 등의 서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대학장구보유」는 제목이 말하듯 주자가 최고경전으로 선정한 「大學」을 비판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주자학을 하늘처럼 여기며 오직 중화사상에 맹종해오던 그 당시 일반선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서슴치 않고 실행한 학문적 예지와 주체의식이 담긴 책"이라고 한다.

### “紅紅白白自天真”

이언적은 또한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났다. 근자에 출간된 「청백리 열전」(윤종호 저, 동승동)에 의하면, 회재는 전주부윤으로 부임할 때 벼루만을 달랑 들고갔다 한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그의 선정에 감사를 표하는 많은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마음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 가져왔던 벼루만 다시 가져갔다고 한다.

“紅紅白白自天真”(붉은 꽃 붉게 피고 흰 꽃 희게 피니 저마다 자연 속에 절로절로 자라나네)

그가 독락당에 머물며 지은 「林居十五詠」의 둘째번 시의 結句처럼 그의 인품과 학문의 세계 또한 자연의 순리 속에서 절로절로 자라 한 시대의 협산준령을 꽃으로 수놓았다고 할 만하다. 책의 명소인 옥산서원과 옥산서원의 주인인 회재 이언적의 아름다움에 비한다면 그 같은 표현이 과장의 수사법은 아닐 것이다.

— 김중식 기자